

# 철학과 역사학, 인물탐구 활발할 듯

특집/불황기에도 기획은 계속된다

인문·사회

“ 지금의 위기가 궁극적으로 철학의 빈곤에서 왔다면, 존재의 본질적 물음을 담고 있는 철학자들은 사유와 성찰의 오솔길로 우리를 안내한다. 역사를 테마별로 살피는 사상사·생활사·인물사 등도 역사읽기의 즐거움을 안겨 줄 듯하다. ”

최근 출판활동이 위축돼 신간발행 중수가 급격하게 줄었다. 그러나 '세한(歲寒) 연후야 송백(松柏)의 참뜻을 알게 된다'는 말처럼 이 위기는 곧 각 출판사들의 출판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재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인문의 바다'에서 시대의 어둠을 밝혔던 인문사회과학 출판사들은 불황의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속에서도 출판의 깃발을 더욱 높이 내걸고 있다. '송백의 참뜻'을 검증받겠다는 다짐인 셈이다. 무엇보다도 고전적인 인문출판 분야인 철학과 역사학, 그리고 인물탐구에서 '뿔'이 예상된다.

## 철학의 빈곤 메울 철학서들

지금 우리 시대가 맞고 있는 위기는 궁극적으로 철학의 빈곤으로부터 왔다. 우주와 존재의 본질적 물음을 담고 있는 철학서들은 사유와 성찰에 이르는 오솔길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철학전문출판사인 서광사는 데이비드 흄의 도덕철학에 관한 사유인 《도덕에 관하여》, 쿠르트 플라시의 《중세철학 이야기》, 골드먼의 《철학과 인지과학》 등을 다음달에 내놓는다. 계명대 이진우 교수의 《서양 이성의 종언》(문예출판사)과 리처드 로티의 《철학 그리고 자연의 거울》(까치), 리처드 커니의 《대화 속의 현대사상-현대사상가들과의 대담》(한나래) 등은 현대철학과 지성의 흐름을 정리하고 있다.

헤겔의 변증법적-역설적 체계를 재구성한 하워드 P. 케인스의 《헤겔 철학의 현대성》(문학과학지성사), 그리스 철학자와 현대인들과의 시공을 초월한 만남을 그린 데 크레센초의 《그리스 철학자(1·2)》(리브로), 독일적인 시각에서 프랑스 철학을 분석한 만프레드 프랑크의 《신구조주의란 무엇인가?》(인간사랑) 등은 우리의 철학적 인식을 더욱 두텁게 할 것이다.

역사서는 총론에 해당하는 시대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각론적인 주제사들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사상사·생활사·인물사 등도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시대사로는 인드로 몬타넬리의 《로마제국사》(까치)가 유일하고 한국역사연구회 근현대사분과에서 지은 《한국 근현대사 산책》(역사비평사), 이진희·강재언의 《한일 교류사》(학고재), 신규호의 《성씨로 배우는 한국역사》(석필), 이배용 외 여성사학자 10인의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와 홍순민의 《궁궐로 보는 조선사》(청년사), 시드니 민츠의 《음식 맛보기, 자유 맛보기》(지호) 등은 주제사에 속한다. 한편, 지식산업사에서 나오는 《서

양의 지적 운동 2》(김영한 엮음)는 서양의 지적 운동의 흐름을 짚어보는 지성사다.

공자의 평전인 차주환의 《공자》(술)와 요하임 페스트의 《히틀러 평전(전3권)》(가제, 푸른숲)은 인물평전의 모범을 보여준다. 소크라테스·예수·토마스 모어 등 순교자 20명의 삶을 조명한 블드윈 스미스의 《바보들, 순교자들, 반역자들》(지호), 죽음을 무릅쓰고 진실의 편에 섰던 지식인들의 용기를 증언한 N. 할라즈의 《나는 고발한다-드레퓔스 사건과 에밀 졸라》(한길사), 실존인물비평서인 강준만 교수(전북대)의 《인물과 사상 6》(개마고원) 등을 통해 인물읽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대중소비사회의 확장과 함께 대중문화를 이론적·학문적으로 접근한 책들도 여럿 기획되고 있다. 문예출판사에서 출간할 유리 로트만의 《문화기호학》과 질 리포베츠키의 《덧없는 제국》은 대중문화를 기호학·사회학적으로 분석한 명저들이다. 한나래에서 나올 예정인 클라우디아 스프링거의 《사이버에로스: 후기산업시대의 육체와 욕망》은 상업영화·소설·만화에 등장하는 테크노 에로스의 이미지를 탐구한다. 마크 케인스의 《역사 속의 영화, 영화 속의 역사》(소나무)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역사의 허와 실을 밝힌다. 김창남 교수(성공회대)의 《대중문화론》,



시대의 어둠을 밝힐 인문 교양서들이 독자의 손에 물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유순하의 《한국문화에 대한 체점적 고찰 99》(한울), 그리고 국제한국학회에서 엮은 《한국문화와 한국인》(사계절) 등은 한국문화의 정체성과 방향을 우리 시각으로 고찰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방향 점검

90년대식 사회변혁운동의 걸어온 길과 나아가갈 길을 점검하는 책들도 출간목록에 올라 있다. 70·80년대 민주변혁운동의 이론적 맹장이었던 백낙청 교수(서울대)의 《분단체제론》과 분단과 통일을 문학작품 속에서 분석한 전영애 교수(서울대)의 《독일문학에 나타난 분단과 통일》(창작과비평사) 두 작품은 비평영역에서 분단체제의 극복 방안을 모색한다. 조희연 교수(성공회대)의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당대)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신정부 출범이 지니는 의미와 사회운동의 방향을 점검한다.

사회주의 몰락 이후 동구의 현재모습을 그린 한양대 임지현 교수의 《바르샤바에서 보낸 편지》(강),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를 쉽게 풀어쓴 서울대 송병락 교수의 《다시 배우는 자본주의》(김영사), 그리고 대학 신입생들을 위한 사상교양강좌인 《지식의 세계 2》(동녘)은 우리 시대 지성들의 고뇌 어린 시대인식을 담고 있다. 프랑스의 식민

지 알제리의 의사이자 혁명가였던 프란츠 파농의 《검은 피부 하얀 가면-포스트콜로니얼리즘 시대의 책임기》(인간사랑)와 멕시코 민족해방전선의 부사령관인 마르코스의 편지와 성명서를 묶은 《분노의 그림자》(당대) 등은 제3세계적 시각을 부각시킨다. 그 외에 칼 슈미트의 《파르티잔의 이론》(문학과학지성사)도 변혁운동의 이론을 제공한다.

고전작품의 출간도 계속 이어진다. 한길사에서는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 슈페터의 《10대 경제학자》, 장 뒤비뉴의 《축제와 문명》, 김부식의 《삼국사기》 등을, 솔에서는 유길준의 《서유견문록》과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을, 그리고 동녘에서는 《논어》를 쉽게 풀이한 《한글로 읽는 고전-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등을 작업하고 있다.

종교서로는 중앙일보 이은운 기자의 《선(禪)을 알면 인생이 즐겁다》(가제, 자작나무)와 조너선 커시의 《길없는 창녀》(까치), 그리고 에밀 루드비히의 《예수의 전기》(지호) 등이 출간 준비를 하고 있다. 움베르토 에코의 《중세예술과 미학》(열린책들)과 권오창 화백의 《조선복식화》(현암사)는 예술과 미학의 학문적 깊이를 더한다. 언어학 분야에서는 위르겐 트라반트의 《홀볼트의 상상력과 언어》가 출간된다. 또한 한국문화유산담사회의 《한려수도과 제주도》(돌베개)와 이용한의 《사라져가는 오지문화기행》(실천문학사) 등의 책자는 낯선 곳으로의 방향을 충동질한다.

IMF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경제·경영서의 출간도 활발할 전망이다. 《재테크 바이블》(김영사), 《돈 없이 할 수 있는 것 뭐 없나?》·《유망자격증 50》(길벗), 《난세경영》(문학과학지성사), 《손바닥 주석》·《손바닥 경제용어》(사계절), 《월급장이에서 SOHO사장으로》 등이 곧 독자들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그 외에 《한번에 두번 보는 영수어》(친구미디어), 《남을 욕하는 사람, 남을 칭찬하는 사람》(황금가지), 《안정효의 영어 길들이기》(현암사), 《월드컵을 10배 재미있게 보는 책》(문학사상사), 《수술로 키를 늘일 수 있나?》(자작나무) 등도 서가에서 손때 물을 날을 기다린다. — 박천홍 기자